



**[3분기 실적]**  
삼성·LG전자  
어닝서프라이즈?  
국내외 곳곳 암초  
03



**Economy**

코스피	2046.25 (0.00)	코스닥	635.41 (0.00)
금리 (연평균)	1.26 (+0.03)	환율 (원/달러)	1193.10 (-3.50) (8일)

## 대통령도 총리도 국회의장도 ‘親기업 메시지’

# 文정부, 경제정책 무게추 옮기나

文 ‘노동시간 단축 보완’ 주문  
이낙연 총리, 문희상 의장도  
대기업, 국내산업 위상 전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친(親)노동’에서 ‘친(親)기업’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최근 친기업적 발언을 언급한 게 이를 방증한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세계재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를 골자로 한 정책)’은 친노동에 가까운 경제정책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노동시간 단축 관련)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0인 이상)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신용정보·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 등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



573돌 한글날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글날 시민 꽃 바치기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법령의 우선 정비 등을 통해 실질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 발언에 대해 정·재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기업의 우려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완하게끔 주문한 것으로 ‘친기업 스킴’에 나섰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 발언은 앞서,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8월 20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해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로 대응이 어려우면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경총의 애로사항과 궤를 같이 한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자산업 60주년 기념식’ 때 “전자산업 덕분에 우리나라는 60년 동안 800배가 넘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며 “전자산업의 성공에는 대기업 지도자들의 빠른 결단과 대담한 투자가 주요했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유럽 헝가리 내 ‘부다페스트 삼성SDI 공장’을 찾아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 이미지”라며 “삼성은 곧 대한민국이고, 둘(삼성·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위상이 상승 중”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핵심 인사들의 친기업 발언에 대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명을 요구한 정계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성적표는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가 싶다”며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려면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가족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 국정동력이 떨어지자 이를 회복하려는 취지가 아니냐고 진단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친기업적 메시지를 통해 국정동력의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우승준기자 dn1114@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19 제약·바이오 포럼’

## 다시 바이오!

-혁신의 파이프라인

K-바이오가 추락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로 기대를 모았던 모았던 토종 바이오 기업들이 연이어 글로벌 임상 3상 실패를 발표한 탓이다.

코오롱티슈진 ‘인보사’가 주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며 품목 허가 취소된 후, 신라젠의 폐사베에 이어 헬릭스미스가 개발중이던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엔젠시스’까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은 컸다. 바이오라면 무조건 추종하던 투자심리도 바이오라면 무조건 기피하는 ‘바이오 포비아’로 차갑게 돌아섰다.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한국 바이오 산업도 동력을 잃을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잃기엔 이르다. 정부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의 신속 허가를 위한 ‘첨단바이오법’을 통과시키고, 바이오를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연간 4조원을 투입하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내에는 여전히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산업의 부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연구와 투자로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해가고 있다. 실제 없이 부풀었던 거품이 사라지고 나면, 이러한 진짜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2019 제약·바이오 포럼’을 통해 바이오 산업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토종 바이오 벤처들이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 ◆주제 : 다시 바이오-혁신의 파이프라인
- ◆일시 : 10월24일(목) 오전 9시~12시
- ◆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최 : 메트로경제
- ◆등록 :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의 : (02)721-9826 또는 forum@metroseoul.co.kr



## ‘D공포’ 차단 나선 이주열, 추가 금리인하 시사

경기회복 위해 통화완화 유지  
16일 금통위서 인하 가능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낮다며 “당장 디플레이션 징후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경우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정부의 재정정책 필요성을 당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은 목표치(2.2%) 달성이 쉽지 않겠지만 2%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이주열 총재는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

의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커지는 ‘D공포’...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를 하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1965년 소비자물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 이후 1999년 외환위기 당시 0.8%, 2005년에 0.7%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만약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이 0.7% 밑으로 떨어질 경우 역대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0%로 발표됐던 지난 8월도 1년 전보다 0.038% 떨어진 것이어서 사실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저물가에 대한 우려는 국정감사에도 지적됐다. 지난 8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근 두 달 연속된 마이너스 소비자물가로 본격화된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럼에도 한은은 최근 마이너스 물가는 일시적인 요인이고 근원물가 상승과 2%대의 기대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동반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디플

레이션 징후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마이너스가 지니는 것은 농수산물 기저효과가 컸기 때문”이라며 “디플레이션을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당장 디플레이션 징후로 보기는 어려워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회복세를 높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만약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커졌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다음주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김광림 자유한국

당 의원의 질문에 이 총재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경기 회복세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금리인하 신호를 다시 한번 내비친 셈이다.

한은은 경기 침체 우려와 대외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3년 1개월 만에 인하했다. 올해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단 두 차례 남았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인하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다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0.25%포인트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과거와 같지 않아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정책 효과가 더 크다”며 과감한 통화정책의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2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